제10장 종교: 의로움이 아니라 관계성(Religion as Relationship, Not Righteousness)

A. 주제(Thesis).

종교는 옳은 일을 소유하기 위해 거래와 통제를 통한 정복이 아니라 함께 참 인간으로 가까워져 사심 없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품어 실천자의 삶을 사는 관계성이다.

B. 문제점(Problems).

1. 사이의 공간 없는 관계성으로 죄와 구원에 잡혀있는 교회를 구원할 수 있다.(p.290)
2. 성경의 이야기는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에 대한 대화인데 경전의 우상화로 소유를 위한 목적과 수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p.291)
3.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고 예수를 회복해야만 새로운 시대에 존재할 수 있다.(p295)

C. 논점(Argumentation).

1.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를 '나'와 '너'라는 본질적인 것과 '나'와 '그것'이라는 수단적인 것으로 마틴 부버는 구분하고 있다.
    a. I & Thou- 주체와 주체로 서로가 참인간으로 마주하는 관계(p.298)로서 무엇과도 바꿔질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대체 불가능한 '당신'과의 깊은 신뢰 속에 돌봄과 존경과 헌신적인 만남의 관계(p298)를 말한다.
    b. I & It – 주체와 객체로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것으로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이다.
    c. 교조주의들에 의해 하느님이 '나(I)와 그것(It)'의 신앙으로 바뀌어 대화대신 거래, 만남대신 구원, 목적대신 연금 등의 상품화 된 것을 '당신(Thou)'으로 변화시켜서 나의 존재가 Thou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p300)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마25:37-9) (p300)
2. 성경의 대화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나와 당신'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p.301)
    a. 창조의 이야기는 말을 통하여 생명이 없는 그것(It)에 생명이 불어 넣어 당신(Thou)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p302)
    b. Thou를 It로 둔갑시켜 하느님의 부르심의 인식보다 의로움을 요구하던 목회는 '나와 당신(I & Thou)이란 관계의 모습과 행동을 보여 주어(p305) Thou의 관계로 변화시켜야한다.
    c. 예수는 It인 농민계급 출신으로 왕권을 재 정의하여(p.308) 세상이 비인간화시킨 소외된 이들을 'It'로 정의할 때 예수는 'Thou'로 정의했고 함께 아파하는 연민으로 나아갔다.(p.308) 고로 우리도 It를 Thou로 품지 않으면 예수와 나의 관계는 다시 정의 되어야한다.
3. 성경의 목소리는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초대장이다.(p.309)

a. 성경이 지배층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It들을 길들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노예제도, 여성비하, 권력옹호와 유지, 폭력의 정당화등)
b. 신앙의 본질과 종교 자체의 목적에 관한 인간 의식이 바뀌어야한다.(p.311) 하느님은 차별 없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는데 정통주의에 의해 갈릴리 현자의 영혼을 배반하여(p310) 인간의 "모든 보호, 특권, 자격, 인종 등을 인류에게서 빼앗기어(p311) 주류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다.
c. 새 시대의 교회는 믿음을 통한 혜택이 아니라 사랑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에 대한 보상이 내재적이어야한다.(p.313)
d. 복음은 신봉자가 아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p314) 사는 귀한 존재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따르미로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 어거스틴의 말 중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말이 있다 이는 모든 인간은 그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최선의 것으로 사랑받을 존재임을 시사 하는 장이라 생각 합니다.

D. 평가(Critique).

1.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 나는 교회의 안과 밖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2. 우리 삶의 현장은 근본주의자들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어 그들에 의해 여전히 'Thou를 It'의 관계로 취급되며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며 살고 있다. 그런데 흔히 우리를 진보주의라 칭하는데 실천자로서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있다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시구처럼 우리들은 모두가, 당신은 나에게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귀한 존재로 잊혀지지 않는 무엇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